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권예지**·차유리***

초 록

이 연구의 목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 이용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그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성별 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서울 20대 성인 남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N = 330) 했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하위요소(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 효과는 미디어 종류에 따라 달리 제시됐다. 프로그램 장르별 효과를 알아본 결과, 서바이벌 예능·일반 음악 쇼·일반 코미디 장르를 이용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단 동일 미디어 및 장르일지라도 배양효과에 성별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성별 영향력 측면에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차별주의 유지의 심리적 기제 파악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의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했다.

주제어 :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미디어 이용량, 프로그램 장르, 주관적
안녕감, 배양효과

* 이 연구는 2017년 ‘한국언론학회 신진학자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켓링크 [서베이 스테이션]으로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원받았습니다. 저자들이 2019년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에 게재한 논문 ‘An Empirical Encounter of Cultural Orientation and Cultivation Theory’의 설문조사와 동일한 조사 데이터를 이 논문의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논문의 초고는 2019년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을 밝힙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yeji@kobaco.co.kr)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ilooy@sogang.ac.kr)

I. 문제 제기

성차별주의는 남녀 간 적대적 형태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글릭과 피스크(Glick & Fiske, 1996)가 소개한 양가적 성차별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에서도 성차별의 양가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시스템에 도전하기보다는 정당화에 기여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를 중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일견 여겨질 수 있으나, 전통적 여성상을 유지하는 여성들에게만 칭찬과 호의를 베풀며 기존 남녀 권력 구조를 교묘하게 강화하여 성 불평등 존속에 기여하는 이데올로기다(Connelly & Heesacker, 2012; Glick & Fiske, 2001). 남녀 역할이 시간에 따라 평등주의적으로 변해왔어도, 경험적 증거들은 전통적 성역할이 적어도 이성애 관계에서 여전히 지배적임을 보여준다(Sanchez, Fetterolf, & Rudman, 2012).

이 같은 성차별주의는 가정·학교에서의 일상의 대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경로를 통해서도 형성된다(Rollero, 2013). 특히나 미디어 이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가 그려내는 세계를 실제 세계로 인식하는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가 양가적 성차별주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배양효과 연구는 특정 미디어 이용량(예, Arendt, 2010)을 주로 다루다가 장르별 이용량(예, 나은경, 2013)으로 확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미디어 이용 양식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6)’ 기반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미디어의 이용량 효과뿐만 아니라 특유의 내러티브를 가진 장르별 영향력도 검토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한국 개인들의 성차별주의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될 가능성도 탐색한다. 양가적 성차별 이론 관점의 연구자들은 온정적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Hammond & Sibley, 2011; Napier, Thorisdottir, & Jost, 2010).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Napier et al., 2010).

여성에게 차별적인 성차별주의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전통적 성역할 관계에서 주요하게 발견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공존하면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를 저해하는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문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England, 1993),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여성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노출된 여성들과 달리 사회변화를 촉구할 가능성이 낮다(Becker & Wright, 2011). 여성들이 기사도와 영웅적 자질을 지닌 배우자에 관해 낭만적 환상을 지닐수록 자기 개인의 권력에 비교적 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Rudman & Heppen, 2003). 이런 맥락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성차별주의 태도에 여러 미디어 및 장르 이용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려 한다. 나아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II. 문헌연구

1. 시스템 정당화 이론 관점에서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성차별주의 연구들에 관한 주요 비판은, 개인들이 소속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한계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관점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Jost & Banaji, 1994; Jost, Banaji, & Nosek, 2004). 해당 연구자들은,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떤 불리한 조건에 놓인 집단구성원들이 집단 불평등을 수용하여 현상이 유지되도록 그들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유사한 맥락에서 글릭과 피스크(Glick & Fiske, 1997)는 여성에 관한 적대시, 전통적 성역할 지지만을 다루는 기존 연구 경향에 문제를 제기한다. 인종차별주의와 다르게, 성차별주의에는 남성의 구조적 권력과 함께 여성의 이분력(dyadic power)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여성 대상 적대감에 따라 여성을 모든 영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적대적 성차별주의로만 이해하는 것은 성차별주의의 일부만 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대안적 측정 도구로 제시된 것이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다(Glick & Fiske, 1997).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hostile), 온

정적(benevolent) 성차별주의로 나뉜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남성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반감을 갖는 것으로(Glick & Fiske, 2001), 남녀를 적대 구조에 놓는다. 그래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비해 성차별로 인식되기가 수월하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식에 기반을 두므로, 동일한 성차별 행동일지라도 덜 차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Moya, Exposito, & Casado, 1999). 즉 일상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종의 친사회적행동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부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배논리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한다(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41쪽).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heterosexuality)’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Glick & Fiske, 1996, 2001). 먼저, ‘부성주의’는 성차별주의가 애정이나 보호로 작용하는 ‘보호적’ 부성주의,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전제의 ‘지배적’ 부성주의로 나뉜다.

‘성역할 분화’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로 세분화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의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의 고양을 야기하는 하향비교용 대상자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 관점에서는 남과 여 각자가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예,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바깥일을 맡는 역할)을 고착화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성애’는 여성이 성적 매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다고 여기는 ‘적대적’ 이성애, 남녀 관계를 심리적으로 친숙한 관계로 여기는 ‘친밀한’ 이성애로 나뉜다. 각 요소의 양가성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근원이 된다.

2.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과 성차별주의 태도

미디어는 성 의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et al., 1986)의 배양효과(cultivation effect) 이론은 미디어가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TV를 많이 보는 중시청자(heavy viewer)는 TV에서 그리는 세상이 실제 본인이 사는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배양효과는 우선 주류화를 통해 발생한다. 주류화(mainstreaming)는 흐름, 혼합, 왜곡

과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TV가 그려내는 관점으로 수렴시킨다(Griffin, 2012).

실제,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예컨대 TV쇼 등장인물 중 남자가 여성에 비해 2배가 많은 반면, 뉴스 보도에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그리는 비율이 높았다(Gerbner, Gross, Morgan, Signorielli, & Shanahan, 2002; Romer, Jamieson, & Aday, 2003). TV 중시청자들(heavy viewers)은 경시청자들(light viewers)에 비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가 강했다(Gerbner et al., 2002). 종이신문(Arendt, 2010), 연결망 기반의 온라인 게임 상황(Williams, 2006),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서도 중이용자들은 온라인 세상이 현실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나은영, 2012).

성차별주의와 관련해 미디어 이용량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장르별 배양 효과에 주안점을 둔 연구도 필요하다. 장르 구분 없이 TV 시청량만 다루면 TV가 개인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TV 내 프로그램 '장르'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관련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예, 나은경, 2013; Hawkins & Pingree, 1981; Segrin & Nabi, 2002).

여러 장르들로 구성된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에는 주로 여성을 보호해야 하거나 여자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가부장적 남성성이 공존한다.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 중 여성 출연자는 약 29%, 남성은 약 70%를 차지하는데, 다수가 출연한 경우에는 남성이 주인공 역할을 맡고 보조인물은 남성보다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심미선·김경희·강혜란·최희진, 2017).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는 전통적 남성성을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장면도 포함된다(강혜란·윤정주, 2010). 성(gender) 관계를 전복하는 듯 보이는 오락 프로그램 장르가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강혜란·윤정주, 2010; 이신혜, 2011; 심미선 외, 2017 등).

한편, 미디어가 변하더라도 장르별 내러티브는 유지된다(Morgan, Shanahan, & Signorielli, 2015). 따라서 다중 미디어 환경에서 콘텐츠 장르가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보는 작업은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한 배양효과 크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디어 이용자 개인들의 성 유형·미디어가 그려내는 성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의식도 성별에 따른 경향성을 보여 왔기에(홍기원·전방지·차경호, 2001), 배양효과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TV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미용성형 수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집단에서만 매개적 역할을 하고 여성에게는 장르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미용성형 수술 동의를 높여줬다(심재웅, 2014).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1: 미디어 이용량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1-2: 장르별 이용량은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1-3: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3.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어떤 사회에서의 차별은 구성원들의 안녕감을 저해한다고 알려져 왔다. 예컨대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소속된 여성의 안녕감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다(이숙정·오재림, 2010).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옹호하는 이성애자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도 상대방에게 승배의 대상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불만을 크게 느끼며(Hammond & Overall, 2013),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Casad, Salazar, & Macina, 2015).

그러나 다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평등 조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만족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에는 차별에 대한 관점, 차별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방식들과 관련된 맥락, 및 개인 특성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Barreto, Ellemers, Chiangri, & Stroebe, 2008).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개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66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Bjørnskov, Dreher, & Fischer, 2007), 성별·소득·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의 성차별주의가 생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랐다. 중상위 소득층 및 진보층 남성의 경우에는 성평등 효과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이끌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및 가족 문제에서의 평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주관적 삶의 질은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국내 보고도 존재한다(이명신·이훈구, 1997).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 및 취업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성차별주의 경험은 여전히 일상과 보도에서 적어도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요 상호작용 효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Jones et al., 2014). 그러나 양가적 성차별주의 중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

성에 대한 애정의 일환으로 취급되며 차별로 인식되지 않기 쉽다.

정리하자면, 개인들의 성별 및 기타 요인들에 따라 성차별주의의 수준은 물론이고 성차별주의와 관련될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를 밝힌 실증 연구 사례는 현시점에서 볼 수 없다. 나이퍼와 동료들(Napier et al., 2010)이 32개국을 대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생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맺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정당화는 남성의 생활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라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차별 사건들이 시간이 갈수록 대상의 안녕을 해친다(Colella & King, 2018). 따라서 오늘날 한국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인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인가?

연구문제 2-2: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

탐색적 성격의 이 연구는 서울 거주 만 20-29세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삼았다. 국내 남녀 갈등은 특히 20대 사이에서 심각하고(장덕진, 2019), 이 연령집단은 성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갈 중심 동력으로 간주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2017년 3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마켓링크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표집 및 실사를 시행했다. 3,000명에게 설문조사 참가의뢰 이메일을 보냈고, 5일 간의 조사 응답자는 총 32.6%인 979명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성, 연령, 지역 할당에 벗어난 인원수, 스크리닝 문항에서 탈락한 이들을 제외한 330명(남녀 1:1)을 유효 표본으로 이용했다.

2. 측정변인

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안상수 외, 2005) 중 온정적 및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16문항이 조사에 쓰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였다(1 = 매우 반대, 5 = 매우 동의).

저자 2인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총 3인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및 커뮤니케이션 학과 전문가 2인의 본 연구주제에 관한 의견을 참조하여 일부 문항을 요인분석에서 제외했다. 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3 요인이 도출됐다. 요인명은 ‘온정적 성차별주의’(Cronbach’s $\alpha = .87$), ‘(적대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Cronbach’s $\alpha = .90$), ‘적대적 이성애’(Cronbach’s $\alpha = .88$)로 명명했다. 요인 1의 경우, 안상수 외 (2005)의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지배적 부성주의’에 속했던 문항들 [예,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은 안정적이다,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이 ‘보완적 성분화’ 문항들과 함께 같은 요인으로 도출되어 ‘온정적 성차별주의’라 명명했다. 요인 적재치가 ‘보완적 성분화’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지배적 부성주의’ 문항에서는 남녀 관계에 다른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들의 경우처럼 반감을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더욱이 한국은 유교 및 가부장 문화권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이 다수 집단의 체제를 정당화하거나(Jost & Banaji, 1994) 보완적 성분화 개념처럼 ‘역할’의 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스템 정당화 이론적 관점에서 반영하여, 해당 3요인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활용했다.

〈표 1〉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	초기 고유치	변량(%)
온정적 성차별주의	여자는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80	3.59	29.91
	여성의 선천적인 부드러움은 남성이 따라갈 수 없다	.76		
	남자의 권위가 여자보다 큰 가정은 안정적이다	.75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섬세함을 지니고 있다	.72		
	집의 소유주(명의)는 남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72		
	대체로 모임의 리더는 남성이 맡는 것이 좋다	.72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	초기 고유치	변량(%)
경쟁적 성분화	여권운동가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87	2.61	21.72
	여권운동가들은 남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87		
	요사이 여성의 권익 옹호를 위한 발언은 공평을 넘어 서서 지나치다	.82		
적대적 이성애	여자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한다	.88	2.45	20.42
	여성들은 남자에게 애교를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한다	.82		
	여성들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남자들을 부러먹는다	.76		

2) 미디어 이용량

총 8가지 미디어에 대한 이용 빈도를 7점 리커트 척도(이용 경험 없음: 0, 하루에 여러 번: 7)를 활용해 각각 물었다[① 지상파TV(M = 3.97, SD = 1.31), ② 종합편성/케이블채널/위성TV(M = 3.89, SD = 1.37), ③ 종이신문(M = 3.97, SD = 1.31), ④ 인터넷 신문(M = 4.08, SD = 1.64), ⑤ 인터넷 SNS(M = 4.70, SD = 1.52), ⑥ 인터넷 포털사이트(M = 5.09, SD = 1.17), ⑦ 인터넷 커뮤니티(M = 3.78, SD = 1.77), ⑧ 인터넷 방송(M = 3.47, SD = 1.76)].

3) 미디어의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

윤해진과 문성철(2010)의 연구에서 분류한 장르를 현재 미디어 상황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차용했다. 해당 10가지 장르물을 일주일 평균 얼마나 시청하는지를 물었다. 시청경험 없음(0점), 일주일 중 1-2일 혹은 1-2회분(1점), 3-4일 혹은 3-4회분(2점), 5-6일 혹은 5-6회분(3점), 매일 혹은 7회분 이상(4점) 중 본인의 경험에 걸맞은 응답을 택하도록 했다[① 서바이벌 예능(M = 0.90, SD = 1.00), ② 기타(서바이벌 외) 리얼리티 표방 예능(M = 1.38, SD = 0.98), ③ 미용/패션 정보(M = 1.00, SD = 1.13), ④ 기타(미용/패션 외) 교양/생활정보/다큐멘터리(M = 1.04, SD = 1.01), ⑤ 로맨틱/멜로 드라마(M = 1.18, SD = 1.11), ⑥ 사회비판/고발 드라마(M = 1.05, SD = 1.03), ⑦ 일반 음악쇼(M = 0.89, SD = 1.05), ⑧ 일반 코미디(M = 0.94, SD = 1.09), ⑨ 뉴스(M = 1.86, SD = 1.30), ⑩ 탐사보도(M = 1.10, SD = 1.12)].

4) 주관적 안녕감

개인들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평안하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는지 정도다. 디이너 외(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홉스테드(Hofstede & Hofstede, 2017)의 문항을 차용해 총 2문항(예, '요즘 나는 건강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M = 3.11$, $SD = 0.83$). 2문항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63으로, 분석에 적합한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Eisinga, Grotenhuis, & Pelzer, 2013).

5) 통제변인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성별·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삼았다.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게시물/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응답자들에게 5점 척도로 물었다($M = 2.49$, $SD = 1.22$). 연령은 본인의 만 나이를 숫자로 기입하게 했다. 성별은 더미변수(남자 0, 여자 1)로 변환했다.

IV. 연구결과

1. 미디어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18~.71의 범위에서 유의미한 상관계수가 제시됐으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이하 VIF)는 2.1 이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성차별주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미디어 이용량의 영향력은 이용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표 2〉 참조). 온정적 성차별주의 회귀분석 모형은 유의미하게 제시됐다($F(11, 318) = 9.22$, $p < .001$). 종이신문 이용량은 정적 영향력을 보인 반면($\beta = .24$, $p < .001$), 인터넷 신문 이용량은 부적 요인이었다($\beta = -.17$, $p < .01$).

경쟁적 성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미디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대적 이성애의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F(11, 318) = 3.15$, $p < .001$]. 종편/케이블/위성TV의 이용량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7$, $p < .01$).

.05). 지상파는 영향력의 베타값의 방향성이 달랐지만 크기는 같았다($\beta = .17$, $p < .05$). 종이신문의 이용량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 = .16$, $p < .01$).

〈표 2〉 미디어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3***	-4.38	-.42***	-7.86	-.09	-1.45
	연령	.15**	2.73	-.03	-0.50	.14*	2.32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2.69	-.16**	-3.13	-.07	-1.16
	ΔR^2	.17		.20		.05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05	-0.70	-.01	-0.11	.17*	2.15
	종편/케이블/ 위성TV	.06	0.79	.05	0.67	-.17*	-2.17
	종이신문	.24***	4.40	-.08	-1.46	.16**	2.71
	인터넷 신문	-.17**	-2.87	.01	.16	-.01	-0.18
	인터넷 SNS	.03	0.44	-.07	-1.22	-.05	-0.70
	인터넷 포털사이트	-.03	-0.51	.12	1.81	-.01	-0.13
	인터넷 커뮤니티	.04	0.62	-.01	-0.10	.04	0.67
	인터넷 방송	.05	0.82	.09	1.62	.00	-0.05
	ΔR^2	.07		.03		.05	
F (11, 318)		9.22***		8.76***		3.15***	
R^2		.24		.23		.10	
수정 R^2		.22		.21		.07	

주. N = 330.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여성 = 1. * $p < .05$. ** $p < .01$. *** $p < .001$.

2.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수 간 상관은 .34~.59의 범위 내, VIF는 최대 2.4 이하로써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 3〉과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서바이벌 예능($\beta = .22$, $p < .001$), 일반 음악 쇼($\beta = .13$, $p < .07$), 일반 코미디($\beta = .27$, $p < .001$) 장르 이용량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F(13, 316) = 12.27, $p < .001$]. 경쟁적 성분화와 적대적 이성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장르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3〉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23***	-4.75	-.46***	-8.61	-.15*	-2.54
	연령	.16**	3.16	-.04	-0.79	.14*	2.48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2*	2.45	-.18*	-3.34	-.08	-1.33
	ΔR^2	.17		.20		.05	
장르 별 이용 량	서바이벌 예능	.22***	3.31	-.10	-1.37	.04	0.49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02	-0.27	-.02	-0.36	.04	0.59
	미용/패션 정보	.01	0.15	.10	1.57	.06	0.87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05	-0.75	.13	1.67	.12	1.43
	로맨틱/멜로 드라마	-.02	-0.24	.01	0.19	.08	1.08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08	-1.09	.06	0.75	-.10	-1.23
	일반 음악 쇼	.13+	1.82	-.07	-0.90	-.12	-1.40
	일반 코미디	.27***	3.81	-.09	-1.13	.09	1.09
	뉴스	-.07	-1.18	.00	0.00	-.04	-0.65
	탐사보도	-.04	-0.60	-.04	-.55	.05	0.63
	ΔR^2	.16		.02		.05	
F (13, 316)		12.27***		7.10***		2.72**	
R^2		.34		.23		.10	
수정 R^2		.31		.19		.06	

주. N = 330.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여성=1. +p < .07. *p < .05. **p < .01. ***p < .001.

3. 미디어 및 프로그램 장르별 이용량이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성별 영향

성별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와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제시됐다[F(10, 154) = 2.61, p < .01].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인터넷 신문 이용량이($\beta = -.23$, p < .01)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종이신문($\beta = .17$, p < .07)은 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쟁적 성분화에는 종이신문($\beta = -.17$, p < .05)만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F(10, 154) = 2.95, p

< .01]. 적대적 이성애에는 경쟁적 성분화 결과와 다르게 종이신문($\beta = .25$, $p < .05$)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F(10, 154) = 2.18, $p < .05$].

여성의 경우, 종이신문($\beta = .34$, $p < .001$)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영향을 미쳤다[F(10, 154) = 5.14, $p < .001$]. 적대적 이성애에는 종편/케이블/위성 TV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이긴 했으나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1	1.38	-.18	-2.25	.17*	2.09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20*	2.49	-.05	-0.59	-.06	-0.74
	ΔR^2	.08		.06		.05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10	-.84	-.12	-0.99	.08	0.64
	종편/케이블 /위성TV	.04	.33	.20	1.70	-.10	-0.85
	종이신문	.17+	1.97	-.17*	-2.03	.25*	2.95
	인터넷 신문	-.23**	-2.44	-.04	-0.38	-.08	-0.80
	인터넷 SNS	.07	.74	.03	.32	-.06	-0.65
	인터넷 포털사이트	.03	.24	.08	-.75	.02	0.19
	인터넷 커뮤니티	.20	2.18	.09	1.04	.13	1.39
	인터넷 방송	.00	-.01	.14	1.62	.00	0.05
	ΔR^2	.07		.10		.08	
F (10, 154)		2.61**		2.95**		2.18*	
R^2		.15		.16		.12	
수정 R^2		.09		.11		.07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여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8*	2.19	.13	1.52	.14	1.53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1.84	-.28***	-3.40	-.09	-1.01
	ΔR^2	.10		.10		.03	
미 디 어 이 용 량	지상파TV	-.04	-0.45	.07	0.69	.21	1.95
	종편/케이블/ 위성TV	.10	1.03	-.11	-0.95	-.22*	-1.98
	종이신문	.34***	4.50	-.04	-0.51	.07	0.84
	인터넷 신문	-.14	-1.71	.04	0.40	.04	0.43
	인터넷 SNS	.03	0.35	-.05	-0.51	.01	0.14
	인터넷 포털사이트	-.14	-1.57	.09	0.94	-.07	-0.73
	인터넷 커뮤니티	-.09	-1.11	-.03	-0.31	.00	0.05
	인터넷 방송	.09	1.08	.06	0.66	-.01	-0.16
	ΔR^2	.16		.02		.04	
F (10, 154)		5.14***		2.00*		1.15	
R^2		.26		.12		.07	
수정 R^2		.21		.06		.01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7. *p < .05. **p < .01. ***p < .001.

남성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2, 152) = 4.99, p < .001]. 일반 코미디($\beta = .35$, p < .01)와 서바이벌 예능($\beta = .24$, p < .05)이 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성 집단의 경쟁적 성분화에 대한 회귀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12, 152) = 2.95, p < .001]. 일반 코미디($\beta = -.30$, p < .05), 서바이벌 예능($\beta = -.23$, p < .07)이 부적 영향을, 사회비판/고발 드라마($\beta = .27$, p < .05)는 정적 영향을 주었다. 적대적 이성애에는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beta = .32$, p < .01)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F(12, 152) = 2.20, p < .05].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일반 음악 쇼($\beta = .13$, p < .05)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 정적 영향을 주었다[F(12, 152) = 5.05, p < .001].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장르별 이용량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남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11	1.55	-.24**	-3.08	.18*	2.27
	반 성차별주의 행동경험	.14	1.74	-.04	-0.46	-.13	-1.45
	ΔR^2	.08		.06		.05	
장르 별 이용량	서바이벌 예능	.24*	2.10	-.23+	-1.85	.03	.23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11	1.21	-.02	-0.22	-.04	-.36
	미용/패션 정보	-.02	-0.16	.15	1.51	.03	.33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12	-1.09	.21	1.81	.32**	2.66
	로맨틱/멜로 드라마	-.10	-0.92	-.14	-1.21	.20	1.64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19	-0.19	.27*	2.04	-.10	-.73
	일반 음악 쇼	.10	0.10	-.01	0.10	-.14	-1.18
	일반 코미디	.35**	3.15	-.30*	-2.54	.01	-.07
	뉴스	-.05	-0.64	.01	0.10	.02	.20
	탐사보도	.04	0.35	-.13	-1.07	.00	-.02
	ΔR^2	.21		.13		.10	
F (12, 152)		4.99***		2.95***		2.20*	
R^2		.28		.19		.15	
수정 R^2		.23		.13		.08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5. **p < .01. ***p < .001.

〈표 7〉 여성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장르별 이용량 효과

예측변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연령	.22**	3.03	.09	1.07	.11	1.28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	.18*	1.64	-.32***	-3.82	-.06	-0.71
	ΔR^2	.10		.10		.03	
장르 별 이용 량	서바이벌 예능	.23	2.51	-.02	-0.18	.04	0.39
	기타 리얼리티 표방 예능	-.15	-1.71	-.03	-0.29	.13	1.32
	미용/패션 정보	.03	0.34	.12	1.21	.10	0.95
	기타 교양/ 생활정보/다큐	.07	0.60	-.01	-0.05	-.06	-0.50
	로맨틱/멜로 드라마	.02	0.20	.07	0.67	.03	0.31
	사회비판/ 고발 드라마	.01	0.07	.04	0.34	-.13	-1.17
	일반 음악 쇼	.13*	1.23	-.12	-1.01	-.11	0.89
	일반 코미디	.24	2.28	.05	0.47	.15	1.25
	뉴스	-.11	-1.23	-.04	-0.83	-.05	-.50
	탐사보도	-.09	-0.84	.06	0.56	.08	.66
	ΔR^2	.19		.03		.06	
F (12, 152)		5.05***		1.72+		1.14	
R^2		.29		.12		.08	
수정 R^2		.23		.05		.01	

주. n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p < .07. *p < .05. **p < .01. ***p < .001.

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성별 효과

반성차별주의 행동 경험은 전체 및 여성 대상 상관관계 분석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니었으나, 남성 집단에서는 유의확률이 .06이었으므로 남녀 집단 비교를 위해 통제 변인으로 투입됐다. 우선 〈연구문제 2-1〉의 결과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 = .21$, $p < .001$)와 적대적 이성애($\beta = .12$, $p < .05$) 태도는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 323) = 4.06, $p < .001$].

성별 분석 결과(〈연구문제 2-2〉),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 단 남성 집단

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beta = .19, p < .05$)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F(5, 159) = 2.77, p < .05$), 여성 집단에서는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과 달리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8〉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전체		남성		여성	
		β	t	β	t	β	t
통제 변인	성별	-.04	-0.63	-	-	-	-
	연령	-.08	-1.39	-.13	-1.68	-.05	-0.67
	반 성차별주의 행동 경험	.06	1.01	.07	.84	.08	0.94
	ΔR^2	.02		.02		.01	
양가적 성 차별 주의 태도	온정적 성차별주의	.21***	3.58	.19*	2.36	.18*	2.23
	경쟁적 성분화	.02	0.28	-.11	-1.30	.12	1.42
	적대적 이성애	.12*	2.07	.10	1.30	.12	1.55
	ΔR^2	.05		.06		.05	
F전체(6, 323), F남녀(5, 159)		4.06***		2.77*		1.91	
R^2		.07		.08		.06	
수정 R^2		.05		.05		.03	

주. N전체 = 330. n남녀 = 165. β 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자들의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성차별주의 태도는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나아가 이들 영향력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적 관점을 취한 가운데,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을 연구의 주요 배경으로 삼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한 내용이 다음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연구결과 요약

경로	전체	남성	여성
미디어 이용량 → 온정적 성차별주의	종이신문(+)	종이신문(+)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	
미디어 이용량 → 경쟁적 성분화	-	종이신문(-)	-
미디어 이용량 → 적대적 이성애	지상파(+)	종이신문(+)	-
	종편/케이블/ 위성TV(-)		
	종이신문(+)		
장르별 이용량 → 온정적 성차별주의	서바이벌 예능(+)	서바이벌 예능(+)	일반 음악 쇼(+)
	일반 음악쇼(+)		
	일반 코미디(+)	일반 코미디(+)	
장르별 이용량 → 경쟁적 성분화	-	서바이벌 예능(-)	-
		일반 코미디(-)	
		사회비판/고발 드라마(+)	
장르별 이용량 → 적대적 이성애	-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	-
양가적 성차별주의 → 주관적 안녕감	온정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
	적대적 이성애(+)		

첫째,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미디어 이용량과 관계가 있었다. 미디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라는 양극에 있는 성차별주의를 배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해 종이신문의 이용량이 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반대의 영향력을 보였다. 둘 모두 ‘신문’이지만, 미디어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지에 따라 영향의 방향성이 달랐다. 종이신문과 다르게 온라인 신문이 가진 쌍방향 소통 공간,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공간 등 매체 특징 또한 성차별주의에 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 또한 다분하기에 향후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이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리 도출되어 미디어 이용자 성별에 따라 배양효과가 다르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과 달리, 하위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써 성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남성 집단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미디어 이용량 종류나 장르 종류가 많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터넷 신문 이용이 증가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완화되는 경향이

남성 집단에서만 발견됐다는 점이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담론적 특성이 성차별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탐색적으로 밝힌 결과다.

한편 여성 집단에서는 종이신문을 많이 볼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요소들인 ‘경쟁적 성분화’나 ‘적대적 이성애’에 대한 종이신문 이용의 영향력은 남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 남성이 종이신문을 많이 이용할수록 경쟁적 성분화 태도가 오히려 약화되는 반면, 적대적 이성애 태도는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라는 동일 범주에 대해서라도 미디어 이용량의 효과가 하위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결과에는 해석상 주의가 요구되는데, 전통적인 미디어로 분류되는 종이신문은 경쟁적 성분화 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능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이용자 특성에서 연유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풀이해볼 수 있다. ‘2018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대학원생의 종이신문 이용률은 2.1%에 불과하다(방송통신위원회, 2019).

한편 경쟁적 성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설문 문항이 ‘여성 페미니스트’ 대상 태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탐색적 성격의 이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함께 고려될만 하다. 페미니즘이 20대 가치관·삶의 기획·정치적 욕구 등을 검토하는 데 중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한국의 20대 여성 10명 중 약 5명만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보고 있으므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후속 연구자들은 ‘여성’에 대한 경쟁적 성분화 태도 측정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에서는 서바이벌 예능·일반 음악 쇼·일반 코미디를 이용할수록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 음악 쇼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성 상품화(성윤숙·손병덕, 2014), 일반 코미디에서 내용과 달리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남녀 관계를 전복하는 듯 보이는 오락 프로그램 장르가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강혜란, 윤정주, 2010; 심미선 외, 2017; 이신혜, 2011 등)과도 유사한 결을 보인다. 미디어에 성차별주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기존 내용분석 연구 결과와 본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남녀가 주로 즐겨보는 장르들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배양효과 발생 가능성이 포착된다.

다만, ‘모든’ 오락 프로그램이 성차별주의를 강화시킨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오락 프로그램이 성차별주의를 강화할 수 있더라도, 성차별주의

를 깨뜨리는 내러티브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김선영, 2020). 여기에 여성주의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이 결합 된다면, 오락 프로그램 등의 특정 장르 또한 성차별주의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한편 성차별주의 태도에 대해 장르의 이용량이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20대 여성보다 남성 집단에서 장르별 이용량이 성차별주의 태도의 하위요소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했다. 일반 코미디 프로그램과 서바이벌 예능을 통해 여성에 대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경쟁적 성분화는 약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타 교양/생활정보/다큐, 사회비판/고발 드라마는 여성을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이용 장르들 중 '일반 음악 쇼' 장르의 이용량만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성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의 성차별주의인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여성 당사자가 부지불식간에 미디어를 통해 키우기 쉽다고 풀이될 수 있다.

결국 <연구문제 1>에 관한 상기 내용들은 20대 남성 집단에서는 종이신문 이용량이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를 동시에 높이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배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울러 적대 관계보다 알아채기 힘든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20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장르를 통해 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관한 미디어 효과가 성별 달리 제시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예, 심재웅, 2014)과도 일부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이 반 성차별주의적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내용분석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면밀한 해석도 가능하다.

다섯째, <연구문제 2-1>의 결과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적대적 이성애 태도가 강할수록 20대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 단 <연구문제 2-2>의 결과로, 20대 남녀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남녀 집단 모두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영향력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유의미하게 제시됐다.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댓글에서 볼 수 있는 적대적 남녀 구도·여성에 대한 호의와 애정으로 포장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한국 사회 내 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게 하는 데 효율적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 결과(예, Hammond & Sibley, 2011; Napier, et al., 2010)와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관한 방증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홍기원 외

(2001)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성에 애착이 강할수록 평등의식이 높은 편이다. 집단적 자존감 가설로 보자면, 자신의 성에 애착이 강할 경우에는 고양된 집단적 자존심을 느껴 남녀 고정관념적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평등한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홍기원 외, 2001). 한국 사회에서 성별 성 애착, 관련 비교문화 연구도 후속적 과제들로 고려될만 하다.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의 요인들(경쟁적 성분화, 적대적 이성애)과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부터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주의 태도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만 한정될 수 있음을 새로이 밝혀주는 결과로서 가치롭다. 이는 성차별주의가 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 간 차이를 발견한 선행연구들(예, Bjørnskov, et al. 2007)과는 맥이 다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자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는 경향이 비교적 성 평등적 국가에서 발견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보면(Napier, et al., 2010), 한국 사회가 성 평등 차원에서 어떤 사회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도 역으로 포착된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중미디어 시대의 여러 미디어 및 장르를 고려하여 이들이 성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 1>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세부항목이나 성별 집단별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이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검증하여, 국내 개인들의 미디어 이용이 간과되기 쉬운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 배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미디어 이용자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 2>를 중심으로 살펴본 가운데, 성차별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작동 기제의 이해를 높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한국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사회 구성원들이 성차별적인 것으로 감지하기 어려운 온정적 성차별주의적 상황들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심의 및 교육 차원의 실무자들이 미디어프로그램 콘텐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상할 때, 미디어 환경이 반영된 세부 항목을 고민해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송통신심의 과정은 물론이고 성차별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차원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만이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량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채널·신문사·운영자, 콘텐츠의 내용

과 형식(예, 브랜드드 콘텐츠) 등에 따라 이용자의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온라인 기사는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댓글을 통해 다른 이용자의 의견을 접하고, 여론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장윤재·이은주, 2009)

또한 서울 거주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했기에,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시대 효과 및 연령 효과를 구분하여 접근하거나, 성 인지 감수성 등 성 관련 인식을 고려하여 미디어 및 장르별 이용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후속연구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연령별 비교분석을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변화, 영향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인과(social causation) 가설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한 점도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사회 선택(social-selection) 효과에 주안점을 두면, 삶의 만족도가 차별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설명요인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두 가설의 검증 또한 후속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출만한 주제다.

참고문헌

- 강혜란·윤정주(2010). 젠더에 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차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선영(2020). “2020년도 ‘여성파워’ 콘텐츠 계속될까?”. N콘텐츠. 14호. 14-17.
- 나은경(2013). “텔레비전 시청 장르별 시민성 및 가치관 계발 효과의 차이”.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150-157.
- 나은영(2012). “SNS 중이용자와 경이용자의 현실인식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6권 제3호. 63-84.
- 방송통신위원회(2019). 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성윤숙·손병덕(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심미선·김경희·강혜란·최희진(2017).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심재웅(2014). “TV예능오락프로그램 시청이 청소년들의 미용성형수술 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성학회지. 제1호 제3권. 87-98.
- 안상수·김혜숙·안미영(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39-66.
- 윤해진·문성철(2010). “미디어 레퍼토리 유형에 따른 콘텐츠 소비: 지상파 장르선 호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5호. 325-369.
- 이명신·이훈구(1997). “주관적 삶의 질에 나타난 성차의 원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권 제1호. 89-101.
- 이숙정·오재림(2010).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직유효성, 직장 및 가정생활 갈등 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제1호. 7-39.
- 이신혜(2011). 방송 코미디 프로그램의 젠더담론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장덕진(2019.9.9.).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젠더 간 혐오는 한국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이 뿌리””.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3573673> 에서 2020.1.17. 인출.
- 장윤재·이은주(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3권 4호. 50-7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KWDI Brief. 제50호.
- 홍기원·전방지·차경호(2001). “남녀의 평등의식, 고정관념적 성차의식,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5권 제2호. 173-188.

- Arendt, F. (2010). Cultivation effects of a newspaper on reality estimates and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22(4). 147-159
- Barreto, M., Ellemers, N., Cihangir, S., Stroebe, K. (2008). The self-fulfilling effects of contemporary sexism. In M. Barreto, M. Ryan, & M. Schmitt (Eds), *The glass ceiling in the 21st century*(pp. 99-12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cker, J. C., & Wright, S. C. (2011). Yet another dark side of chival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1), 62-77.
- Bjørnskov, C., Dreher, A., & Fischer, J. A. (2007). *On gender ine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No. 657). SSE/EFI Working Paper Series in Economics and Finance. The Economic Resesarch Institute. Stockholm.
- Casad, B. J., Salazar, M. M., & Macina, V. (2015). The real versus the idea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9(1). 119-129.
- Colella, A., & King, E. (Eds.). (2018). *The Oxford handbook of workplace discrimin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onnelly, K., & Heesacker, M. (2012). Why is benevolent sexism appeal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6(4). 432-443.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isinga, R., Te Grotenhuis, M., & Pelzer, B. (2013). The reliability of a two-item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4). 637-642.
- England, P. (Ed.). (1993). *Theory on gender*. New York, NY: Transaction Publishers.
- Gerbner, G., Gross, L., Morgan, M., Signorielli, N., & Shanahan, J. (2002). Growing up with television. In J. Bryant &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pp. 43-6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6). Living with

- television. In J. Bryant & D. Zillman. *Perspectives on media effects* (pp. 17-4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lick, P., & Fiske, S. T.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1). 119-135.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Griffin, E. (2012).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New York. NY: McGraw-Hill.
- Hammond, M. D., & Sibley, C. G. (2011). Why are benevolent sexists happier?. *Sex Roles*. 65(5-6). 332.
- Hammond, M. D., & Overall, N. C. (2013). When relationships do not live up to benevolent ideal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3). 212-223.
- Hawkins, R. P., & Pingree, S. (1981). Uniform messages and habitual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7(4). 291-301.
- Hofstede, G., & Hofstede, G. J. (2017. 2. 26). VSM 2013. <http://geerthofstede.com/research-and-vsm/vsm-2013/>에서 2017.2.26. 인출.
- Jones, K., Stewart, K., King, E., Botsford Morgan, W., Gilrane, V., & Hylton, K. (2014). Negative consequence of benevolent sexism on efficacy and performance. *Gender in Management*. 29(3). 171-189.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Jost, J. T., Banaji, M. R., & Nosek, B. A.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Morgan, M., Shanahan, J., & Signorielli, N. (2015). Yesterday's new cultivation, tomorrow.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8(5). 674-699.

- Moya, M., Exposito, F., & Casado, P. (1999). *Women's reactions to hostile and benevolent sexist situations*. In 22nd General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xford, England.
- Napier, J. L., Thorisdottir, H., & Jost, J. T. (2010). The joy of sexism?. *Sex Roles*. 62(7-8). 405-419.
- Rollero, C. (2013). Men and women facing objectification. *Revista de Psicologia Social*. 28(3). 373-382.
-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doi:10.1111/j.1460-2466.2003.tb03007.x.
- Rudman, L. A., & Heppen, J. B. (2003). Implicit romantic fantasies and women's interest in personal pow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357-1370.
- Sanchez, D. T., Fetterolf, J. C., & Rudman, L. A. (2012). Eroticizing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ex Research*. 49(2-3). 168-183.
- Segrin, C., & Nabi, R. L. (2002). Does television viewing cultivate unrealistic expectations about marriage?.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247-263.
- Colella, A.J. & King, E. B. (2018). *Organizational remedies for discrimination*. *The Oxford handbook of workplace discrimina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D. (2006). Virtual cultiv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69-87.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Usage by Media and Programme Types, Attitudes of Ambivalent Sexism, and Subjective Well-Being

Yeji Kwon*·Yuri Ch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usage by media and programme types on discrimination attitudes as ambivalent sexism which is more likely to be overlooked than hostile sexism, and how the attitudes affect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by considering gender effec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male and female adults aged 20 to 29 (N = 330) in Seoul.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 of media usage on these factors(benevolent sexism, competitive differentiation, hostile heterosexuality) varied according to media type. As a result of studying the effects of usage of programme by genres, the more the amount of usage of reality TV competition or music performances or comedy programme was, the stronger ambivalent sexism attitudes was strongly suggested. However,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cultivation effects even in the same media and programme by genre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gender influence of ambivalent sexism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individuals, only the positive effect of benevolent sexism was found to be significant.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at help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maintaining sexism.

Keywords : Ambivalent sexism, Media usage, Programme by genre, Subjective well-being, Cultivation effect

* Research fellow,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 Corresponding Author : Principal research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Media and Culture at the Sogang University